

영조의 위기극복 리더십 연구: '이인좌의 난' 사례를 중심으로*

박 현 모 |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인좌의 난'은 1728년 3월 15일부터 3월 28일까지 약 보름간 진행된 전국적인 반란으로, 출범한 지 얼마 안 되는 영조 정권에게 큰 타격이자 도전이었다. 이인좌, 박필현, 정희량 등 비(非)노론계 세력들이 중심이 되어 일으킨 이 반란은 연이은 기근으로 인해 흥흥해진 민심과 '경중독살설'을 등에 업고 충청도와 경기도, 경상도와 전라도 일대를 장악해 갔다. 하지만 오명항 등 관군 지휘부의 주도면밀한 대응과 영조 정권의 적극적인 소통 및 정보통제로 애초 목표였던 지역별 연대를 통한 반정(反正)까지 나가지 못하고 괴멸되었다. 이 논문은 그 동안의 연구를 기반으로 하되, 기존 연구와 달리 주로 국왕 영조의 관점에서 반란이라는 중대한 위기를 극복해 가는 리더십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첫째, 영조는 반란 발발 소식을 듣고 초기에는 반군의 주동자와 규모를 파악하지 못했지만 오광운, 오명응과 같은 비(非)노론 신하들의 조언을 받아들여 적극적인 대응을 해 나갔다. 특히 반란군과 같은 당파(소론)이며 친분관계에 있었던 오명항 등을 중용하는 모험을 했는데, 오명항·박문수 등은 그에 보답이라도 하듯 반군을 진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둘째, 영조는 반란이 진행되는 동안 여러 차례 난의 발생 원인이 조정의 잘못, 즉 붕당의 폐단에 있음을 언급하면서, 난 진압 후 초당파적 인재를 등용하는 탕평책과, 온 나라가 한 동포와 같이 화합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정치를 이끌어가겠다는 정치비전을 제시했다. 바로 그러한 영조의 인재경영과 비전 제시가 이인좌의 난이라는 중차대한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게 했다.

주제어: 위기, 리더십, 정치비전, 영조, 이인좌의 난, 괴서, 탕평

* 이 논문은 2006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6-353-A00057).

I. 위기극복의 군주, 영조

우리 역사에서 영조시대(英祖時代, 1724-1776년)는 “탕평과 실학의 시대”(이성무 1998) 또는 “조선왕조의 국력과 문화수준이 크게 높아지고, 사회경제의 발전과 안정이 증진”(한영우 1997)된 때로 알려져 있다. 당파를 초월해 인재를 등용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 서 균역법과 청계천 준천사업을 추진해 “우리문화의 황금기인 진경시대”(최완수 외 1998)를 열었다는 인식이 그것이다. 그런데 영조가 어떤 과정을 거쳐 그와 같은 정치적, 사회경제적, 문화적인 발전을 가져왔는지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물론 영조의 정치에 대해서는, 탕평책의 “본질과 성격, 정치적 기능”에 대한 연구(정만조 1986)를 비롯해, 영조의 탕평정치를 다섯 시기로 나누어 그 특징과 각 시기의 정치세력관계 등을 세밀하게 고찰한 연구(박광용 1994)와, 그리고 영조와 탕평파들의 국정운영론에 대한 연구(이근호 2001) 및 “민국(民國)”이라는 관점에서 영조의 백성과 국가관을 다룬 논문(김백철 2009) 등이 있다. 하지만 리더십이나 국가경영의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영조의 위기 극복 과정’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충분하지 않다고 본다.

『영조실록』을 읽어보면 영조는 위기를 극복하는 데 뛰어났던 군주였음을 알게 된다. 실제로 그가 사망했을 때 사람들은 그를 “깊은 근심으로 인하여 오히려 성인(聖人)의 밝음이 열렸고, 많은 어려움을 겪어서 나라를 안정시킨[殷憂啓聖 多難固邦]”(영조 대왕 묘지문[誌文])¹⁾ 군주로 평가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라를 안정시킨’ 위기극복의 리더로서 영조를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영조시대의 상황을 들여다보면 그의 표현대로 그가 “주야로, 깊은 못의 얇은 얼음을 밟고 걸듯이 조심하고 두려워했음”(영조실록 4/4/22 壬寅)²⁾을 알게 된다. 우선 영조의 정권은 재위 10년에 이르기까지 국왕과 집권세력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반란(1728년[재위 4] ‘이인좌의 난’)과 역모, 그리고 잇따른 기근과 패서사건 등으로 불안정했다. 그는 즉위한 직후 당파를 초월해 인재를 등용하는 인사정책을 추진하려 했다. 하지만 집권 노론 등 대다수 정치세력들은 그의 탕평책을 외면했다. 그가 왕위에 오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노론의 신

1) 이 문장은 명나라의 楊爵의 『周易辯錄』이나 하량승의 『중용연의』, 그리고 『왕문성(양명)전집』이나 『유성룡 문집』에서도 보인다.

2) 『영조실록』 4년 4월 22일 壬寅條. 이하에서는 ‘영조실록 04/04/22 임인’으로 약기(略記)함. 夙夜戒懼 如臨淵水.

하들은 국왕을 자기 당의 꼭두각시로 만들려고 했다. 즉위 초반 소론과 남인을 숙청해야 한다는 노론의 집요한 요구와 상소들이 그것이다.

다른 한편, 비(非)노론계열의 사람들 역시 영조의 인사정책에 불만이 많았다. 1733년(재위 9)에 소론의 박문수가 지적한 것처럼, 탕평책이란 “사람을 씬에 있어서 저울대처럼 공평히 하여 색목(色目: 당파)에 구애됨 없이 공정하게 임용”하는 것이고, 그래야 “비로소 동서 남북(東西南北)의 탕평을 이룰 것인데, 지금은 그렇지 아니하여 다만 노론·소론만 탕평되었을 뿐”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남인 등 소외 세력들은 조선은 “노론·소론의 나라 이지 전하의 나라가” 아니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라가 장차 위태롭고 멸망하는 데 이르더라도 절의를 위해 죽는 선비는” 결코 찾아볼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었다(영조실록 09/12/19 丙寅).

설상가상으로 영조시대에는 계속되는 기상이변에 따른 기근과 전염병으로 대규모로 굶어죽거나 병들어 죽는 사람이 많았다. 재위 9년의 실록기사를 보면, 경상도의 진흥장(賑恤場)에 나온 기민(飢民)이 15만 7천43인이었고, 떠도는 거지가 1만 9백4인이었으며, 4천2백7인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영조실록 09/05/11 辛卯). 그 다음해인 재위 10년에도 경상도 대구, 충청도 태안, 강원도 삼척, 평안도 정주 등에 큰 기근이 들었는데, 진흥청에 나온 기민(饑民)을 모두 계산해보면, 당시 인구의 10%에 가까운 7만 1천9백여 명이나 되었다(영조실록 10/05/29 甲辰).³⁾

당시 백성들의 굶주림은 심각한 것이어서 부부가 결별하거나 사람을 잡아먹는(영조실록 19/11/23 壬寅)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예를 들면 1725년(재위 1년)의 기록에 따르면 전라도 김제에 사는 고(高)씨 성을 가진 선비[士人]는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 서로 떨어져 살기로 했는데, 헤어지는 날 부인이 “이런 참혹한 흉년을 만나 이제 앞으로 다니면서 빌어먹어야 하니, 인생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무엇을 돌볼 것이 있겠습니까? 집에 키우던 개가 있으니, 청컨대 당신과 같이 잡아서 먹을까 합니다”라고 말했다. 남편이 “나는 차마 손으로 잡을 수가 없다.”고 말하자, 아내가 “제가 부엌 안에서 (개의) 목을 매어 놓을 테니까 당신은 밖에서 그것을 당기세요.”라고 말하고 들어갔는데, 남편이 그대로 하고 들어가 보니, 개가 아니고 바로 그의 아내가 목을 매어 죽어 있었다는 기록이 보인다(영조실록 01/11/03 丁酉).

전국적으로 창궐한 세 차례의 전염병 역시 영조정권에 큰 타격을 주었다. 최소 2만여 명

3) 필자가 『영조실록』에 나와 있는 17회의 인구 통계기록을 평균해 본 결과, 7백6만 6천241명으로 집계되었다. 물론 이러한 수치가 당시의 정확한 총인구라고 볼 수는 없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기민 의 수 역시 공식 기록에 따른 것인 만큼 10%의 비율은 실제에 근접할 것으로 본다.

〈표 1〉 영조시대(1724-1776) 전염병 사망자

구분	사망자 수(명)	지역
1차시기 (1730-1733년)	최소 20,000	전국
2차시기 (1741-1742년)	300,000*	전국
3차시기 (1746-1750년)	660,358	전국
그 외 (1754-1756년, 1768-1769년)	20,816**	삼남, 영남·영동지역
합계	1,001,174명	

* 3차 시기인 1749년의 50~60만을 헤아려 25만 명으로 추정하고, 그 외 사망자 수를 합한 숫자임.

** 1754-1756년의 20,000명, 1768-1769년의 816명을 합친 수

이 죽은 재위 초반(재위 6~9년, 제1차 시기)의 전염병은 재위 중-후반기에 온 역질에 비하면 오히려 가벼운 것이었다. 제2차(1741-1742년), 3차(1746-1750년) 시기엔 무려 “수십 만 명”(18/4/18 丁未, 25/12/4 戊寅)이 사망했기 때문이었다.⁴⁾ 실록에 기록된 전염병 사망자만 해도 전국적으로 1백만 명이 넘었다. <표 1>에서 보듯이, 평균 총 7백 만여 명의 인구 중에서 한 해에 수만 명 내지 수십 만 명이 질병으로 죽거나, 전국을 떠돌아다니며 먹을 것을 구하러 다니는 사태는 실로 영조 정권이 직면한 중대한 위기였다.

바로 이러한 위기를 국왕 영조가 어떻게 극복해 갔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다만 여기서는 영조 초반에 일어난 ‘이인좌의 난’⁵⁾을 중심으로 영조의 위기극복 리더십을 살펴볼 것이다. 물론 영조가 왕위에 있던 52여 년간의 수많은 위기들이 있었다. 예를 들어 즉위년(1724년) 겨울의 ‘김일경 옥사’, 재위 18년(1742년) 봄의 전염병으로 인한 대규모 인구 사망, 재위 31년(1755년)에 전라도의 소론 윤지 등이 주동한 ‘나주괘서사건’, 그리고 재위 38년(1762년) 여름의 ‘사도세자 화변(禍變)사건’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인좌의 난’은 이 위기들 중에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선 그것은 아직 영조 정권이 안착되지

4) 1749년(재위 25)의 보고에 따르면, 여역(癘疫)이 여름부터 겨울까지 전국에 번져 50만, 60만 명이 사망했다(영조실록 25/12/4).

5) ‘이인좌의 난’은 난의 충청도의 이인좌(李麟佐) 혼자 주동한 것이 아니라, 경상도의 정희량, 전라도의 박필현 등으로 분산되어 있었기 때문에 ‘영조 무신란(戊申亂)’으로 불리기도 한다(정석중 1994). 하지만 무신란이라는 말은 자칫 ‘무신란(武臣亂)’으로 혼동될 소지가 있어서 피한다.

않은 재위 초반에 전·현직 관리들이 주동이 되어 일어난 전국적 규모의 반란이었다.⁶⁾ 만약 이 난이 성공해서 이인좌 등이 정권을 잡고 소현세자의 증손자 밀풍군을 새 왕으로 추대했다면 — 과거 서인의 이귀 등이 광해군을 몰아내고 능양군(綾陽君: 인조)을 왕으로 추대한 ‘인조반정’ 때처럼 — 정국은 큰 파란을 일으켰을 것이며, 영조와 정조로 이어지는 탕평책이며, 균역법 등 일련의 개혁정책도 그 성격을 달리 했을 것이다. 특히 영조는 이 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노론이 아닌 소론의 인물을 중용했는데, 이것은 이후 영조로 하여금 비(非)노론 세력들과 정국을 운영해 갈 수 있는 중요한 토대로 작용했다. 한마디로 ‘이인좌의 난’ 극복 과정은 영조의 정치 리더십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위기’란 무엇이며, 영조의 위기극복 리더십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영조를 ‘위기극복의 군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념설정 작업을 먼저 하고 ‘이인좌의 난’ 극복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II. 위기의 개념과 접근방법

‘위기(危機)’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위험한 고비” 또는 “위험한 경우”라고 나온다. 그런데 ‘위기’란 말은 사서삼경(四書三經)에는 나오지 않는다. 물론 “불안정하게 무릎을 꿇는 모양”에서 비롯된 위(危)라는 한자나, “세밀한 장치가 되어 있는 기구”라는 뜻의 ‘기(機)’라는 한자는⁷⁾ 「논어」를 비롯한 「서경」 등에 자주 나온다. 다만 ‘위기’라는 말을 묶어서 한 단어로 처음 사용한 것은 당나라 때부터로 보이며,⁸⁾ 우리나라의 문헌에서는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1251년)에서 “위기”라는 말이 처음 확인된다. 즉 이규보는 ‘꿈을 기록함’이라는 시에서 “나는 위기를 (잘못) 밟아서[踏危機] 이제 만 리 밖으로 유배되었네”라고 쓰

6) 정석중 교수는 몇몇 역옥 추안을 근거로 반군의 중심점이 충청도의 이인좌가 아니라 전라도 지역의 노비도적을 이끈 정팔용을 비롯해 경기도의 의사 임서호, 충청도의 큰 부자 김덕삼 등 중인 및 상인층이었다고 본다(정석중 1994, 158-164). 하지만 영조실록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볼 때, 이들이 반군을 이끌고 오명항 부대와 전투를 벌였던 이인좌 등에 비해 특별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7) 許慎, <說文解字注>(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8).

8) <사고전서>에 수록된 당나라(618-907)의 방교(房喬) 등이 쓴 <진서(晉書)>를 보면, “위기가 급한 데 사람이 어찌 목숨을 바쳐 지키지 않을 수 있겠는가(危機之急 人何能以死守之乎)”라는 말이 보인다. <사고전서(四庫全書)> 史部 1, 晉書.

고 있다.⁹⁾ 중종 때 조광조와 함께 개혁을 추진하다 기묘사화(1638년, 중종 16) 때 죽은 김식 역시 죽기 일 년 전에 “외람되게 벼슬을 탐내다 위기에 빠졌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¹⁰⁾ 그 외에도 『조선왕조실록』에서는 1446년(세종 28)에 올린 이계전의 상소에서 처음 보이고 (세종실록 28/5/3 庚午), 1455년(단종 3년)에 단종도 위기란 말을 사용하고 있다(단종실록 03/01/24 庚午).

말하자면 ‘위기’란 말은 비록 사서삼경에는 안 보이지만,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사용된 용어인데, 그 용례를 참작하고 『한한대사전(漢韓大字典)』에 나온 ‘위와 기의 뜻’¹¹⁾ 토대로 위기란 말을 정의해보면, 그것은 ‘잘 보이지 않지만 작게 일어나는 일의 위태로운 조짐 내지 기회’라고 할 수 있다. 이규보가 “위기를 밟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듯이, 위기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그렇지만 어떤 길을 밟는가에 따라서 위협에 처하거나 기회를 얻을 수도 있는 ‘위험한 기회’ 내지 질병의 싹이 막 자라나려는 초창기인 것이다. 즉 지도자가 그 기회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부흥·발전’할 수도 있고, 반대로 심대한 ‘국난’에 직면할 수도 있는 것이다.

위기를 이렇게 정의해볼 때, 우리 역사에서 영조만큼 ‘위험한 기회’를 많이 겪은 인물도 드물어 보인다. 영조는 알려진 것처럼, 숙종과 무수리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이 때문에 그는 “너희들은 내가 왕자로 들어와 이 자리를 이었다고 가벼이 여기기 때문에 종친부를 멸시(蔑視)하느냐?”(영조실록 09/11/05 壬午)라고 말하는 등 열등감에 시달리기도 했다. 그의 시대는 또한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첨예한 봉당 간 갈등과 대립, 그리고 기상이변에 따른 기근과 전염병으로 위태로운 조짐이 한 해도 빠짐없이 나타나고 있었다. 그런데 무엇보다 국왕 영조에게 가장 곤혹스런 것은 아마도 이복형인 경종을 독살하고 왕위에 올랐다는 ‘혐의’였을 것이다. 당시 노론은 소론과 남인의 지지를 받은 경종 대신 영조를 지지하여 왕위에 오르게 했는데, 이 때문에 그는 재위 초반에 전라도와 경상도에서 시작되어 충청도와 경기도 일대를 휩쓸고 올라온 ‘이인좌의 난’을 겪어야만 했다. 영조 정권 최대의 난관이자 조선 왕조 전체를 통해서 보아도 흔치 않은 이 위기를 극복한 다음에야 비로소 영조는 탕평책을 비롯한 일련의 개혁을 추진할 수 있었다.

그러면 영조의 위기 극복 과정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여기서는 당시 난의 발발 배경이

9) 이규보, <東國李相國全集> 권17. 古律詩(辛卯正月九日記夢). 果然蹈危機. 受此萬里謫.

10) 성현 외, <대동야승>, ‘기묘록보유추록’ 김식傳. 濫叨非分 已陷危機.

11) 『한한대사전(漢韓大字典)』(서울: 민중서림, 2002)에 나오는 ‘위와 기의 뜻은 다음과 같다: 위(危): ① 위태로움 ② 거의(거반) ③ 믿기 어려움, 기(機): ① 틀기(기계) ② 때(기회) ③ 실마리(조짐)

나 전개과정을 우선 살펴볼 것이지만, 그보다는 국왕 영조를 비롯한 총사령관 오명항 등이 그 사건을 어떻게 인식(진단)했고 진압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장애물은 무엇이었으며, 어떻게 극복(또는 좌절)했는지를 중점적으로 고찰하려고 한다. 특히 국왕 등 국가경영자들이 그 사태를 극복해서 어떤 나라를 만들고자 했는지(비전)를 집중해서 살펴볼 것이다. 의사가 환자의 병을 치료하는 과정처럼, 정치지도자는 그 나라와 사회의 문제점을 먼저 '진단'하고 치유의 목표를 설정한 후 그에 맞는 처방을 내린다고 보고 접근하는, 이른 바 “정치리더십에 대한 메디칼 접근”(정윤재 2003)은 전통시대 국왕의 리더십을 설명하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조선시대의 국왕을 비롯한 많은 사대부들은 사람의 병을 고친다는[治病] 관점에서 나라 다스리는 일[治國]을 이해했으며, 실제로 “의국(醫國)이란 말을 자주 사용하였다. 예컨대 율곡 이이(李瑀)는 “좋은 의사[善醫]는 사람이 수척하거나 비대한 것을 보지 않고도 그 맥을 짚어 보고 병이 있는가를 살펴며, 천하를 잘 경영하는 이는 천하의 안위(安危)를 보지 않고도 그 기강의 치란(治亂)을 살핀다”면서, ‘좋은 의사’로서 국왕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¹²⁾

영조시대의 장령 김이만 역시 “나라의 병을 고치는 것은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과 같아 그 병이 난 곳을 알지 못하는 것이 걱정이니, 병을 알고 나면 약을 쓸 수가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영조실록 21/6/19 庚申).¹³⁾ 영조 역시 의학용어로 나라의 일을 자주 비유하곤 했다. 재위 31년에 영조는 “모든 일을 통쾌하게 해서 폐단이 생기는 것은, 응당 병(病)에다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나치게 보충하는 것도 안 되지만 너무 쏟는 것 또한 안 된다. 지금은 마땅히 대승기탕(大承氣湯)을 쓰되 그것을 보익(補益)할 약재를 처방한 연후라야 그 원기(元氣)의 조화를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또 한 첩(貼)을 쓴다면 그 지나침이 응당 어떠한가”라고 하여 신하들의 과도한 정적 처벌 요구를 나무랐다.¹⁴⁾

한마디로, ‘의국론’적 접근법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치가와 지식인들이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으로서,¹⁵⁾ 본 논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국왕 영조를 비롯한 많은 인물들이 문제를

12) 이이, 「성학집요」 권7, 爲政. 善醫人者 不祖其肥瘠 善醫國者 不視其安危 蓋可畏之禍.

13) 「영조실록」 21/6/19(庚申). 醫國猶醫人 患在不知其病耳 知其病則可以藥之.

14) 「영조실록」 31/3/13일(丙戌). 凡事快則生弊 當譬諸病矣. 過補固不可 過瀉亦不可 今則用大承氣湯 其思所以補益之劑 然後可以調和其元氣 而又用一貼 則其過當如何哉; 그 외 31년 10월 3일(癸卯); 39년 7월 8일(癸亥) 등도 참조.

15) 서양의 경우 플라톤이나 마키아벨리 등에서 의국론적 비유(medical metaphor)를 찾아볼 수 있다.

대처해가는 방식을 이해하는데 적실한 접근방법이라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III. 영조의 시국인식(진단): “은 나라가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어 임금도 없고 국가도 없다”

그러면 이인좌의 난이 발발하기 전후에 영조는 당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나? 그의 시국인식은 일차적으로 왕위에 오른 지 4개월 만에 밝힌 ‘탕평전교’에 나타나 있다. “붕당의 폐단이 요즈음보다 심한 적이 없었다.”(영조실록 4/1/3 甲寅)는 말이 그것이다. 이 전교는 즉위한 직후 유학 이의연의 소론 공격으로 시작된 ‘국청(鞠廳)정국’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나왔는데, 영조는 김일경·목효룡 등 소론강경파를 친국(親鞠)하면서 붕당 간의 반대 당파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과 경멸을 겪어야만 했다. 따라서 그것을 해소하지 않으면 자신이 즉위교서에서 말한 “사민과 기쁨을 함께 하는[嘉與士民而同休]”(영조실록 00/08/30 庚子) 정치란 애당초 불가능하다고 영조는 판단했던 듯하다.

영조는 붕당 폐단의 대표적인 예로 ‘인재의 침체(沈滯)’와 ‘공의(公議)의 차단’을 들었다. “요즈음 그 사람을 임용하는 것이 모두 당목(黨目) 가운데의 사람뿐”이어서 그 안에 들지 않은 다른 당파 사람 등 “한 나라의 절반이 침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차가 서로를 공격하는 중에 공언(公言)이 막히고 역당(逆黨)으로 지목되면 (말 가운데) 옥석(玉石)이 구분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천리의 공(公)에 합하고 온 세상의 마음을 복종시키는[合天理之公 服一世之心]” 정치는 점점 요원해지고 있다는 게 영조의 판단이었다(영조실록 01/01/03 壬寅).

실제로 이인좌의 난에 상당수의 소론 측 현직 관리가 가담하고, 남인의 명문가문 후손들이 적극 참여한 것은 이러한 붕당의 폐해와 깊은 관련이 있다. 즉 소론의 박필몽은 현직의 전라감사 정사효, 태안현감 박필현, 담양부사 심유현, 그리고 평안병사 이사성 등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가운데 난을 일으켰다. 남인 중에서도 백호 윤희의 손녀사위(이인좌), 참

예컨대 플라톤은 정치가(statesman)의 역할을 ‘몸을 건강하게 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의 일(doctor’s treatment)에 비유하곤 했으며, 마키아벨리 역시 정치적 시기를 질병 치료의 시기에 비유했다. Plato, *Statesman*, in *Collected Dialogues of Plato*, eds. E. Hamilton & H. Cairns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61), pp. 1021, 1062, 1066.; N. Machiavelli, *The Prince*, (London: Penguin Books, 1961), ch. 3, pp. 39-40.

판 정온의 후손(정희량), 세종조 명신 정인지의 후손(정세운) 등이 반란을 주도했다. 이들은 “주상(主上)께서 소론을 쓰기 때문에 노론(老論)이 바야흐로 거사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소론은 장차 모조리 죽게 될 것[少論將盡死]”(영조실록 4/3/20 경오)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그 노론들을 역으로 선제 제압[先發制人之計]하기 위해 나선 것이 이인좌의 난이었다는 것이다(영조실록 4/3/20 庚午). 봉당간 치열한 경쟁과 대립이 반란의 직접적 원인이 된 것이다.

다음으로 영조가 인식한 ‘위험한 조짐’은 계속되는 흉년과 도적 집단, 그리고 무능하고 부패한 지방 관리들이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전라도 등 남쪽 지방에는 참혹한 기근(飢饉)으로 부인이 남편을 속여 가면서까지 자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었다(영조실록 01/11/2 丙申). 특히 기근이 심한 전라도 지역의 경우 고향을 떠나 떠도는 유민(流民)들이 부안이나 변산 또는 월출산 근처에 무리를 이루고 살았는데, 그들의 기세가 커서 관군이 체포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영조실록 3/10/20 壬寅; 3/10/22 甲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령들은 도적을 금지하는 행정은 도외시하고(영조실록 4/1/11 壬戌), 자기 가족을 돌보거나(영조실록 3/10/18 庚子) 재산을 증식하는 데만 급급했다(영조실록 4/1/11 壬戌). “한 번 수령을 거치면 전답(田畝)을 사고 제택(第宅)을 신축하는 자가 10분에 6, 7은 되며, 임기를 마치고 돌아가는 수령으로서 짐바리가 없는 자가 없기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그것이다(영조실록 04/01/11 壬戌).

이인좌의 난 발발 보고를 들은 직후, 영조가 “원기(元氣)가 실(實)하지 못하면 객사(客邪)가 밖에서 침범하게 마련”이라면서, “해마다 기근이 든 나머지 백성들의 고통이 거꾸로 매달린 듯한” 정황을 “간사한 무리들이 이런 것을 헤아려 알고는 서로 이끌어 난동을 일으키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영조실록 04/03/14 甲子; 04/03/16 丙寅)라고 반응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바로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민심은 흉흉해졌고 조정을 비방하거나 국왕 영조의 정치적 정당성을 부정하는 괴서(掛書)가 경향 각지에 나붙었다. ‘이인좌의 난’ 전후에 유난히 많이 발생한 괴서사건이 그것이다. 괴서란 글자 그대로 ‘국가에 반역을 도모하거나 타인을 모함할 때 궁문·성문·관청의 문 같은 곳에 이름을 숨기고 게시하는 글’로서, 공식적인 언론 매체가 불신 받거나 마비되었을 때 그 효력을 발휘한다. 또한 벽서(壁書), 투서(投書), 익명서(匿名書) 등의 유사 명칭에서 보듯이, 익명의 게시자가 최고권력자나 국가에 파괴적인 영향

력을 발휘하려 할 때 사용되는 비공식적인 여론 선동 수단이다.¹⁶⁾

영조의 재위기간 동안에 발생한 궤서사건은 모두 15건인데,¹⁷⁾ 이 중에서 8건이 ‘이인좌의 난’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즉 대부분의 궤서들이 왕이나 조정 관리들을 비난하고 곧 난이 일어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이인좌의 난’이 일어나는 1728년에 3건의 궤서가 전라도와 서울에서 걸리고 있다.

영조 4년(1728) 1월 한성부의 서소문에 걸린 궤서는 그것을 전후로 하여 발생한 남원과 전주 등지의 궤서사건과 연속되어 있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받았다. 즉 한성판윤 김동필은 영조에게 그 달 11일에 서소문에 걸린 궤서의 내용이 전주의 그것과 같으면서 상금을 걸어서 체포하자고 제안했다(영조실록 04/01/17 戊辰). 그러나 영조는 “전주의 궤서는 작년 12월 12일에 있었고, 남원의 변고는 그 달 14일에 있었는데, 이제 또 도성(都城)의 문에 흉서를 걸었으니, 그 노정[程道]의 날짜를 계산해 보건대, 한 사람의 소생인 듯하다.”(영조실록 04/01/17 무진)라면서, 현상금 방법이 자칫 나라의 체통만 손상시킬 수 있다고 하여 받아들이지 않았다. 극소수 불평불만자의 소행으로 보고 “포도청에서 범인을 비밀리에 추포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 하지만 뒤에서 보겠지만, 당시 포도대장은 이인좌 등과 한 패인 남태징이었고, 따라서 당연히 범인은 추포되지 않았다.)

한편 이들 궤서사건이 발생한 시기를 전후하여 한성부에는 갖가지 사건과 와언이 계속 떠돌았다. 즉 한성부 지역에 변산의 도적이 쳐들어온다는 소문과 함께 창의문 밖에 적병이 일어난다는 와언이 떠돌아 한성부 인근 지역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남산 아래의 사대부들도 가족을 이끌고 앞을 다투어 피난하는 사태가 벌어져 나루터의 길이 막히고(영조실록 4/3/14 甲子), 경기도 일대의 양성·용인 등은 모두 피난하여 마을이 텅 비는 지경이었다.¹⁸⁾ 또한 이 조참판 조문명의 집에는 ‘심히 흉패하고 나라에 대한 부도한’ 말과 조문명 개인에 대해 공갈, 협박하는 내용의 익명서가 날아들기도 하였다(영조실록 04/03/14 甲子).

일이 이렇게 되자 영조는 마침내 현상금을 내걸어 궤서사건의 주동자를 체포하겠다는 발표를 하기에 이르렀다:

16) 역사기록에서 가장 오래된 익명서는 신라 진성여왕2년(888) 때의 것으로, 『삼국사기』에는 “이름을 밝히지 않은 사람이 시정(時政)을 비난하는 글을 써서 조로(朝路)에 게시하였다. 왕명으로 사람들을 수색하였으나 범인을 체포하지는 못했다.”고 되어 있다.

17) 영조시대 궤서 내용에 대해서는 이상배의 연구(1999)를 참조할 것.

18) 『감란록(勘亂錄)』 영조 4년 3월 14일(甲子).

아! 세도(世道)가 날로 떨어지고 인심의 함닉됨이 어찌 오늘날과 같은 적이 있었겠는가? 호남의 궤서의 변고에 이르러서는 극단에 달했다고 할 것이다. 아! 참으로 분통한 일이다. 어떤 요망한 자가 이 윤기(倫紀) 없는 요악(妖惡)한 말을 지어내어 민중을 미혹시킬 계획을 하는지 이는 부도(不道)할 뿐만 아니라 곧 난민(亂民)이다. 곧 추포(追捕)하여 전형(典刑)을 밝게 보여야 마땅하다. [...] 잡아서 발고(發告)하는 자는 선조(先朝: 숙종)의 전례에 의하여 천금(千金)의 상을 주고 2품(品)의 자급(資級)을 내릴 것이다(영조실록 04/02/19 庚子).

여기서도 영조는 궤서사건이 민중을 미혹시키려는 자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숙종 37년(1711) ‘연은문(延恩門) 궤서사건’과 숙종 41년(1715)의 ‘돈화문 궤서사건’과 같이 몇몇 선동 분자들의 소행으로 보고 현상금을 통해 해결하려는 안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영조의 하교가 있는 후 6일 뒤인 3월 15일에 이인좌의 난이 발생했다. 이 난은 뒤에서 살펴볼 것처럼, 전국적인 규모로 전개되었는데 소론 강경파의 박필원, 심유현, 이유익 등이 배후에서 조종하고 이인좌, 정희량, 권서봉 등이 주동하여 영조와 노론의 경종살해에 대한 불충을 내세워 소현세자의 증손인 밀풍군 단을 추대하고자 한 사건이었다.

그러면 ‘이인좌의 난’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되었나?¹⁹⁾ 이에 대해서는 절을 바꾸어 살펴보기로 한다.

IV. 1728년 ‘이인좌 난’의 전개와 대응

1728년 3월 전(前)우의정 최규서가 ‘급서(急書)’를²⁰⁾ 가지고 올라왔을 때 영조의 반응은 의외로 담담했다. 그 다음 날인 3월 15일에 경기도 용인 등지에서 반군이 집결하여 도성을 향해 쳐들어올 거라는 소식을 접하고도 영조는 “해마다 기근이 든 나머지 백성들의 고통이 거꾸로 매달린 듯한데, 간사한 무리들이 서로 이끌어 난동을 부리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

19) 난의 전개과정에 대해서는 정석중 교수의 저서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정석중 1994, 137-171). 또 한 이종범 교수의 글도 그 배경과 전개과정이 체계적으로 서술되어 있다(이종범 2003, 176-209). 다만 이들 연구는 주로 반군의 입장에서 사건의 추이를 서술하거나, 전개과정에 초점을 맞춘 뿐 영조와 조정의 대응에 대해서는 거의 분석하지 않고 있다.

20) 최규서의 급서(急書) 내용은 영조실록에는 없고, 『승정원일기』 영조 4년 3월 14일자에 실려 있다.

다.”라고 말했다. 그 동안 수차례 있었던 궤서사건의 오보(誤報)이거나 혼한 '난동'의 하나로 생각한 듯하다. 이와 비슷한 반응은 오명항에게서도 나타났다. 병조판서 오명항은 “근래 궤서(掛書)하는 일들이 오로지 조정을 겁주려는 계책에서 나온 것으로서, 군사를 모아 난을 일으키는 것이 그렇게 쉽겠습니까?”라며 선불리 계엄(戒嚴) 내리는 것을 반대했다.

그러는 사이에 이인좌 등이 이끄는 반군은 3월 15일에 청주성을 함락하고, 목천·진천을 거쳐 안성·죽산으로 향하고 있었다. 남인 윤희의 손녀 사위인 이인좌는 숙종조 이래 계속된 빈부의 양극화와 연이은 흉년으로 흉흉하던 민심을 등에 업고 충청도와 경기도 일대를 장악했다. 그는 인근의 의원(醫員)²¹⁾ 등 중인집단의 지원에 힘입어 임금이 쓰는 홍양산을 만들고 옥새를 제작하는가 하면, 소현세자의 3세손 밀풍군을²²⁾ 추대하는 등 치밀하게 '반정(反正)'을 주도해 갔다.

이처럼 반군이 “회오리바람과 세찬 비처럼” 북진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정의 대응은 그야말로 한심천만이었다. 최규서의 급서가 올라온 이후 한강 나루가 피난민들로 발 딛을 틈이 없고(영조실록 4/3/14 甲子), 도성의 쌀값이 폭등하는(영조실록 4/3/16 丙寅)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조정 대신들은 반군의 규모나 주동자가 누구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호남과 영남에 있는 봉수(烽燧)가 하나도 작동하지 않은 것도(영조실록 5/7/13 丙辰) 조정의 능장 대응의 한 요인이 되었다.

청주성이 함락되었다는 급보를 들은 영조가 부랴부랴 토벌군을 조직했지만, 총사령관인 김중기는 “타고 갈 말이 없다”거나 황해도 “장단 지역에서 군대가 올라오면 그 때 가겠다”고 말하는 등 차일피일 출발을 미루었다(영조실록 4/3/17 丁卯). 그러는 사이 청주의 절도사 이봉상과 토포사 남연년이 반군에게 살해되었다. 기록을 보면 이 때 반군의 권서봉(權瑞鳳) 등이 청주 경내로 몰래 들어와 거짓으로 행상(行喪)하여 장례를 지낸다고 하면서 상여에다 병기(兵器)를 실어다 고을 성(城) 앞 숲속에다 몰래 숨겨 놓았는데, 이봉상은 이 같은 반란의 소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심하고 있다가 죽음을 당했다(영조실록 04/03/15 乙丑). (* 이순신의 후손이었던 이봉상은 자기 휘하의 기생과 비장이 성문을 열어 죽게 되었지만 죽음을 맞이하는 태도는 당당했던 듯하다. “너는 충무공(忠武公) 집안에 충의(忠義)가 서로 전해져 오고 있음을 듣지 못했느냐? 왜 나를 어서 죽이지 않으냐?”라고 적군을 세 번 꾸짖으며 죽었다는 기록이 그것이다. 영조실록 04/03/15 乙丑)

21) 소론계 어의(御醫) 출신인 임서봉의 동생 임서호가 난을 도왔다(이종범 2003, 195).

22) 왕위계승의 정당성과 관련해 노론이 효종의 혈액을 강조했다면 무신란 주도세력은 소현세자의 적통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이종범 2003, 194).

청주성을 함락한 이인좌 등 반군이 급속도로 커지는 세력을 이끌고 목천과 청안을 지나 진천까지 올라오는 사이, 전라도와 경상도에서도 3월 19일과 20일에 박필현과 정희량이 이끄는 반군이 각각 거병했다. 특히 경상도의 일부지역은 “백성들이 모두 적에게 내응”할 정도로 “적세(賊勢)가 더욱 치성했다.” 경상도 민심이 이처럼 반군 쪽으로 기울까닭은 인조 반정 이후 서인(노론)세력에게 정권을 빼앗겼다는 정치적 박탈감과,²³⁾ 이 지역의 남입계 명망가 정희량의 치밀한 사전준비²⁴⁾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인좌 난 초기에 일반 백성들은 누가 ‘적병’이고 누가 ‘의병’인지조차 헷갈렸던 것 같다. 충청도 진위군 갈원(葛院) 지역에서 있었던 다음 대화가 그것이다:

3월 13일 신이 중미(中彌) 주막에 이르니, 김옥성(金玉成)이 뒤쫓아 이르러 주막 사람과 서로 말을 나누었습니다. 신이 옆에서 그 말을 들으니, 김옥성이 말하기를, ‘어제 아침 소사(素沙)·갈원(葛院) 사람들이 흩어져 달아났기에 나 역시 그곳에서 도망해 돌아왔다. 이는 바로 이곳 의병장(義兵將)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내 이름 역시 적의 성책(成冊) 가운데 들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신이 김옥성에게 말하기를, ‘의병장이란 누구를 말하는가?’ 하니, 김옥성이 말하기를, ‘이곳의 20명이 변산(邊山)·지리산(智異山)의 적과 화응(和應)하여 이번 3월 16일에 한 사람마다 1백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기일이 점차 다가오자 갈원과 소사 백성으로 적의 성책에 들어 있는 자들이 모두 스스로 놀라 흩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적장들 역시 모두 도주해 적소(賊所)로 갔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김옥성에게 말하기를, ‘그렇다면 이는 바로 적병(賊兵)인데 의병(義兵)이라고 말하니 너무 무식하다.’ 하였더니, 김옥성이 말하기를, ‘적병이나 의병이나를 논할 것이 없이 일의 기미가 이와 같다.’ 하였습니다(영조실록 4/3/23 癸酉).

여기서 보듯이 당시 백성들 사이에서는 적병과 의병이 불분명했고,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반군은 신속히 복상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제 평안병사 이사성이 서쪽에서 군대를 일으키고, 서울에서 금군별장 남태징이 궁궐에 심어 놓은 자객들만 동원해 내놓는다면 ‘반정’의 성공은 거의 성공한 거나 다를 바 없었다.

이 같은 풍전등화의 위기에서 사태를 반전시킨 ‘난중 영웅’이 등장했는바, 그는 바로 애초 계엄을 반대했던 병조판서 오명항이었다. 상황은 점차 악화되어 충청도 직산

23) 『推案及鞠案』戊申逆變推案, 제5책, 영조 4년(무신) 5월 7일 조관규供.

24) 동계 정온의 후손인 정희량은 집안의 노비와 전택을 이용해 고향인 경상도 안음(安陰)에 돈과 곡식을 쌓아두었으며 가동(家僮)과 민정(民丁)을 모집했다. 그는 또한 서울의 채단(綵緞)을 많이 사들여 반군의 깃발 등을 제작하기도 했다(영조실록 4/3/26 丙子).

북쪽의 소사(素沙)지역까지 반군이 올라오자 조정은 바야흐로 국왕의 파천(播遷: 피난)을 논의하기에 이르렀는데, 오명항은 자신이 “직접 가서 적을 토멸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주위의 대신들은 “병조판서가 국왕 곁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반대했다. 사실 소론의 전·현직 관리들이 주동이 되어 난을 일으켰는데, 그들과 같은 당파이며 친인척 관계로 얽힌 오명항을, 그것도 같은 소론인 박문수로 하여금 보좌관[從事官]으로 삼아 병권을 위임하는 것은 여러 모로 꺼려지는 일이었다. 하지만 영조는 “병조판서(오명항)는 능히 해낼 것”이라면서 그 자리에서 그를 총사령관, 즉 사로(四路) 도순무사(都巡撫使)로 임명해 경기도 진위로 출발케 했다(3월 17일).

그 다음날부터 영조는 본격적으로 반군 혐의자들을 색출해 처형하기 시작했다. 먼저 그는 가장 우려스런 평안병사 이사성과 그의 종제(從弟)인 선전관 이사필을 호시했다(18일). 이어서 도성 안에서 내응하기로 되어 있던 (포도대장 겸) 금군별장(禁軍別將)인 남태징과 “남산 소나무를 뽑았던” 과천의 장사 신광원을 전격적으로 처형했다(19일). 이들 사이에 의심스런 핵심 관료 세 명을 처단함으로써 사태의 추이를 관망하던 다수 신료들로 하여금 반군 쪽에서 멀어지게 한 것이다. “이로부터 인심이 조금 진정되고 적의 기세가 크게 꺾여 모두들 임금의 독단을 칭송했다”(영조실록 4/3/19 己巳)는 사관의 평가는 이런 상황을 지적한 것이었다.

한편, 도순무사 오명항은 처음에 서울을 떠나 과천 → 수원 → 진위에 도착한 다음 여러 종사관들과 진병(進兵)을 의논한 후 짐짓 “직산으로 향한다”라고 해놓고는 실제로는 안성으로 진군하도록 명령했다. 반군이 안심하고 안성으로 향하도록 “계책을 쓴 것”이었다. 오명항의 계책은 주효해서 반군의 제1군은 안성으로 들어왔는데, 이 때 관군은 미리 도착하여 공격 태세를 갖추고 있는 상황이었다. 오명항의 활약상이 생생하게 기록된 영조 4년 3월 23일의 실록 기사를 인용해보기로 한다:

안성에 이르니 날이 이미 어두웠는데, [...] 잠시 후 앞산에 몇 개의 햇불이 먼 곳으로부터 가까이 오면서 포성(砲聲)과 함성이 계속해서 일어나더니 적병이 진을 침범했다고 후졸(候卒)이 급히 보고해 왔다. 이때 풍우가 크게 몰아치고 밤은 칠흑같이 어두운데 장작불을 미처 피우지 못해 진 밖은 지척도 분간할 수가 없었다. 먹지 못한 군마(軍馬)가 반이 넘어 못 사람들의 마음이 어찌할 바를 몰라 했으나 오명항이 굳게 드러누워 꼼짝도 하지 않고 단지 진오(陣伍)를 정돈한 채 경솔하게 포를 쏘지 말고 적이 가까이 오면 비로소 쏘도록 신칙하였다. 그리고 죽을 준비해 사졸들을 먹고 평소처럼 코를 고니 진중이 거기에 힘입어 안정되었다. 이튿날 새벽 진 밖의 1백여 보 되는 곳에 적병의 인마(人馬)가 탄환에 맞아 죽

고 버린 무기들이 보였다. 대개 적은 각처의 토적(土賊) 및 청주진(淸州鎭)·목천(木川) 등 고을의 마병(馬兵)과 금어군(禁禦軍)으로서 정예한 자를 뽑아 장사치와 거지 차림을 하여 피난민 가운데 섞여 은밀히 안성(安城) 청룡산(靑龍山) 속에 모여 있었는데도 산 아래 촌락이 거의 적의 소굴이 되어 있어 누구 하나 와서 고하는 자가 없어 안성군에서는 아직 이를 알아차리지 못했고, 적의 첩자가 번번이 관군에서 붙잡혔기 때문에 적도들도 단지 대군(大軍)이 직산(稷山)으로 향한 줄만 알았지 진을 안성으로 옮긴 줄은 모르고 어두운 가운데 안성군의 진(陣)인 줄 잘못 알았기 때문에 원군을 구별하지 못해 포(袍)와 화살을 어지러이 쏘았으나 다 미치지 못했던 것이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대군이 쏜 신기전(神機箭)을 보고서야 비로소 경영(京營)의 군사가 온 것을 알고 놀라고 겁에 질려 몰려나 도망하니, 위협에 못이겨 따른 무리는 이때 대부분 도망해 흩어지고, 적의 괴수 이인좌(李麟佐)·박종원(朴宗元) 등은 4, 5초(哨)의 병력을 거느리고 청룡산 속으로 몰려가 둔을 치고 죽산(竹山)의 군사가 오기를 기다렸다(영조실록 04/03/23 癸酉).

여기서 보듯이, 도순무사 오명항의 첫 번째 승전요인은 치밀한 정보 활용에 있었다. 그는 관군 안에 반군의 첩자가 다수 있다는 사실을 역이용했다. 즉 겉으로는 직산으로 향한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그보다 가까이 있는 안성으로 이동해 적을 혼란스럽게 하는 한편, 이인좌가 이끄는 반군보다 먼저 청룡산의 높은 고지를 선점했다. 그날 밤 뒤늦게 당도한 적군의 함성에 놀란 관군에게 오명항은 “군게 드러누워 꼼짝도 하지 않고 단지 대오만 정돈한 채 적이 가까이 올 때까지 포를 쏘지 말라”고 지시했다. 그 사이에 병사들에게 죽을 준비해 먹이고 그는 그전처럼 코를 골기도 했는데, 이는 적군이 관군의 주요 무기인 신기전의 사정 거리에 들어올 때까지 관군으로 하여금 초조하지 않게 하려는 심리전술이었다.

이 안성 전투의 승리에서 자신감을 얻은 관군은 뒤이은 장항령(獐項嶺) 전투에서도 유리한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승세를 잡았다. 그리고 두 번째의 큰 고비였던 죽산 전투에서는 이인좌 등을 생포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죽산부 전투에서 오명항은 “오로지 죽이지 않고 사로잡는 자만 상을 주겠다”라고 하여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무고한 양민의 살육을 막기도 했다. 실록에 따르면 이러한 오명항의 조치에 감응한 죽산부의 백성들이 이인좌를 비롯해 자칭 청주목사 권서봉 등을 사로잡아 바쳤으며,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군기와 마뿔, 그리고 쌀과 옷 등이 관군 진영에 들어왔다(영조실록 4/3/21 辛未).

충청·경기도의 반군을 진압하는 데 오명항의 공로가 컸다면, 경상도 지역에선 박문수의 활약이 돋보였다. 정희량은 그해 3월 20일에 안음의 고창현(古倉縣)에서 거병을 했는데, 일주일 후인 3월 27일에는 이인좌의 동생 이용보가 거창을 함락하는 등 기세를 떨쳤다. 이 때

좌수 이술원은 도망하는 현감 신정모를 따라가 함께 싸울 것을 설득했으나, 끝내 성공하지 못했다(영조실록 4/3/27 丁丑).

하지만 성주목사 이보혁이 합천 금양역에 관군을 집결시키고(3. 27) 그 다음 날엔 오명항과 박문수가 경상도로 진입하면서(3. 28) 전세는 역전되었다. 결정적으로 4월 2일에 선산부사 박필건이 우지치의 험지(險地)를 선점해 거창에서 이동해오는 반군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정희량 등을 사로잡았다. 전라도의 운봉 영장 손명대가 팔랑치를 점거해 반군이 전라도로 못 넘어오게 차단한 것도 경상도 반군의 입지를 크게 좁혀놓았다.

다른 한편, 관군이 중심이 되어 일어난 전라도의 반군은 다른 지역에 비해 가장 지리멸렬했다. 태인 현감 박필현이 3월 19일에 거병했지만, 함께 합세해 상경하기로 한 그의 종형 박필몽이 오지 않았고 같은 날 군사를 일으키기로 한 전라감사 정사효도 배반했기 때문이다. (* 이 때 박필몽은 유배되었던 무장에서 탈출해 태인으로 22일에 박필현을 찾아 갔으나, 박필현이 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태인 → 고부 → 흥덕 → 죽도라는 섬으로 도망쳐 숨었다가 사로잡혔다.) (영조실록 4/3/28 戊寅)²⁵⁾

박필현은 태인을 떠나 금산사를 지나 전주의 삼천 지역에 이르렀는데, 정사효가 전황을 관망하기로 작정하고 전주성문을 열지 않음에 따라 건지산(전주 덕진공원)에서 경상도 상주로 망명했으나 그와 그의 아들 박사제의 모자에 입식(笠篋)한 흔적이 있는 것을 의심스럽게 본 파총 이동형에 의해 추포, 제거되었다(영조실록 4/3/26 丙子).

경상도 지역의 반군 진압과 관련해 박문수의 판단과 공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오명항이 적의 매복을 우려해 추풍령 고개 넘는 것을 두려워하자 “적이 안음에서 일어났는데, 선산이 그 앞에 막혀 있고, 다시 상주가 있어서 적들이 반드시 이 두 진을 깨뜨리지 못했을 것”이라며 신속히 관군을 이동시켜 승세를 잡았다. 뿐만 아니라 그는 영남 백성들이 반군에 대응했던 것 때문에 산 속에서 나오지 않자 단기(單騎)로 촌락을 두루 돌아다니며 조정의 포용책을 알려 농사에 전념하게 만들었다(영조실록 4/4/29 己酉). (* 이 사실은 나중에 경상도 지역에 ‘암행어사 박문수 설화’가 널리 퍼지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다. 즉 이 지역에는 이 때 딱 한 번 다녀온 박문수가 경상도 도처에 다니면서 억울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암행어사로 묘사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때 ‘박문수는 믿을 만 관료’라는 인식이 생겼기 때문이

25) 부안과 변산 앞 바다는 반군의 거점 지역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러 공초자들이 이 지역에는 정 팔용 등에 의해 20여 년간 양성된 군사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推案及鞫案』 戊申逆變推案, 제7책, 영조 4년(무신) 6월 21일 “罪人 宋來翼의 5차 刑問”; 같은 책, 제8책, 무신 7월 초정원 “罪人 姜渭徵의 5차 형문”.

다.²⁶⁾

그러면 오명항과 박문수 등이 현지(現地)에서 활약하는 사이 국왕 영조는 조정에서 무엇을 하였는가? 절을 바꾸어 살펴보기로 한다.

V. 영조의 위기극복 리더십 평가

‘이인좌의 난’이 전개되는 동안 국왕 영조가 한 역할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총사령관을 적시에 교체하고 그에게 충분한 재량권을 부여한 일이다. 영조는 처음에 반군과 연계되어 있는 총용사 김중기를 순토사에 임명하는 등 실수를 범해 출병을 지연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평안병사 이사성이 반군과 연계되어 있다는 공초를 들은 직후, 영조는 병조판서 오명항을 총사령관으로 임명해 출병케 하는 결단을 내렸다. 아울러 그는 오명항이 맡았던 병조판서 임무를 영의정 이광좌에게 겸임케 했는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같은 색목(소론)으로 조직된 ‘이광좌-오명항 지휘체제’가 효과적으로 결정하고 지원할 수 있게 하는 효과를 가져왔다(영조실록 4/3/16 丙寅). 조덕린 등 남인의 명망 인사를 경상소모사로, 전(前)참판 유승을 충청도소모사로, 전 판서 윤현주를 복도 안무사로 각각 임명해(4/3/19 己巳) 해당 지역의 민심을 안돈시킨 것도 적절한 조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해 ‘정적’으로 분류될 수도 있었던 소론과 남인의 신료들의 능력을 믿고 신임했던 영조의 인재경영이 주요한 것이다.

둘째, 도성 안 반군세력 동조자의 처단으로 반군 세력의 확대를 막은 일이다. 영조는 처음에 국청(鞠廳) 여는 걸 꺼렸는데, 남인 출신의 교리 오광운이 “주액(肘腋: 팔꿈치와 겨드랑이)의 변”(영조실록 4/3/15 乙丑), 즉 최측근의 반역 위험성을 제기하자 국청을 설치해 난의 주모자를 조사하고 처벌하기 시작했다. 처음에 영조가 국문을 꺼린 것은 단순한 패서사건에 불과할 수도 있는 이 사건을 확대시키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다. — 실제로 영조는 최규서의 고변이 들어온 다음에도 “천천히 의논해 조치해도 늦지 않다”(영조실록 4/3/14)거나 “우선 천천히 두고 봐야 한다”(영조실록 4/3/16)라고 하는 등 문제의 확산을 꺼렸다. — 영조가 국청설치를 꺼린 데는 3월 16일에 최초로 국문한 용인의 안호 형제 등으로부터는 별다른 정보를 얻을 수 없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오히려 자진해서 변란을 고발하러 온 양성

26) 이에 대한 연구는 박현모의 연구(2009)를 참조할 것.

사람 김종만의 말이 더 유용했다(그의 공술을 통해서 비로소 ‘이인좌’ 등의 이름이 나왔다). 하지만 국청이 계속되고, ‘현지’에서 체포해 올린 반란 주모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반란의 주모자와 규모,²⁷⁾ 그리고 현지의 진행 상황 등 난의 대강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것은 정부의 작전 수립과 조직적인 대응에 큰 도움을 주었다. 영조는 특히 이 과정에서 군권의 중심부를 맡은 총융사 김중기, 금군별장 남태징, 궐직(闕直) 선전관 이사필, 평안병사 이사성 등이 반군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전격적으로 그들을 제거해 나갔다.

무엇보다 영조는 훈련대장 이삼에게 다소 의심 살 만한 구석이 있었지만, 그를 신뢰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반군 진압에 나설 수 있게 했다(영조실록 4/3/19 己巳). 그 외 박문수 등의 제안을 받아들여 국왕 자신이 침전이나 편전에서 나와 임시 천막(帳殿)에 거처한 것도 적의 암살시도를 차단한 것(영조실록 4/3/16)이나, 조정 관료들을 전원 출근하게 해 반군과의 연계를 끊은 것도(영조실록 4/3/18 戊辰) 잘 한 일이었다. 또한 군사요로를 차단하거나 경계 하며, 군량미를 경창(京倉)으로 실어오게 한 것(영조실록 4/3/19 己巳) 역시 ‘이괄의 난’ 때의 인조의 대응에 비춰볼 때²⁸⁾ 매우 적절한 것이었다.

셋째, 핵심 정보의 통제와 백성들과의 소통이다. 조정에서는 난이 진행되는 동안 10여 차례의 전교와 비망기, 그리고 언문 율음을 내려 백성들과 장병들에게 토벌의 당위성과 포상계획을 알렸다. 영조는 전교를 내려 난의 원인이 봉당의 폐단에 있으니 앞으로 탕평의 정치를 펼쳐나가겠다고 선언하는가 하면, 반군의 수장 박필현을 잡아들이는 자에게 천금(千金)의 상을 주겠다고 공지했다(영조실록 4/3/25 乙亥). 조정의 이러한 현상금과 포상 방침은 군 장졸들과 지방의 아전층에게 위협을 무릅쓰고 싸울 상당한 동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라감영의 영리 김성건(영조실록 4/3/25 乙亥)이나 거창현 좌수 이술원(영조실록 4/3/27 丁丑) 등은 반군의 기세가 확산되지 못하도록 막는데 일정한 역할을 했다. 이 때문에 “지방[京外]의 이졸(吏卒)들이 혹은 적의 정세를 탐지해 알리고 혹은 명령을 전통(傳通)하여 나라를 위해 바친 노고가 거의 평일 책을 읽은 선비보다 나았다”(영조실록

27) 이하(李河)의 공술에 따르면 “남인(南人)은 민관효(閔觀孝)가 주관하고, 소북(小北)은 양명하가 주관하며, 소론(少論)은 박필현·이유익·윤덕유(尹德裕)가 주관하는데, 박필현이 비록 음재(邑宰)로 나가 있지만, 사실상 괴수(魁帥)”였다(영조실록 4/3/19 己巳, p. 119).

28) 인조 즉위 2년에 일어난 ‘이괄의 난’은 조정의 때늦은 사태 진단과 우유부단한 대응으로, 국왕 인조로 하여금 공주까지 피난을 가게 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인조실록」 2년 1월부터 2월 사이의 관련 기사와 「연려실기술」 ‘이괄의 난’ 부분을 참조할 것.

4/3/25 乙亥)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²⁹⁾

영조는 또한 난에 직접적이고 적극 가담한 자가 아니면 처벌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하기도 했다(영조실록 4/4/7 丁亥). 특히 그는 반군 세력과 평소 친하게 지냈거나 친인척 관계를 맺고 있는 조정의 신료들이나, 금군별장 휘하의 군인들로 하여금 믿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안심시켜주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도성 안의 반군 내용자들은 세력을 키워가지 못하고 무력하게 주저앉고 말았다.

그런데 난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보여준 영조의 조치들은 그다지 특별하다고 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그것은 보통 이상의 군주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는 위기관리 능력이기 때문이다. 영조를 위기 극복에 뛰어난 군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의 정확한 상황 파악(진단)과 함께, 위기의 싹이 불거져 나왔을 때 새로운 정치비전을 제시해(비전 제시) 신민들을 통합해가는 대응능력(처방) 때문이다. '깊은 근심이 그로 하여금 오히려 성인(聖人)과 같은 밝은 마음을 갖게 했고, 많은 어려움이 도리어 나라를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殷憂啓聖 多難固邦]는 그의 사후 평가(묘지명)는 영조의 그런 측면을 반영한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면 영조는 이 사건의 원인을 어떻게 인식했으며, 어떤 생각을 가지고 대처했는가? 구체적으로 그가 생각하는 좋은 정치의 모습 내지 정치비전은 무엇이었나? 앞에서 '이인좌 난' 전후의 영조의 시국인식을 살펴보았거니와 여기서는 난과 직접 관련된 그의 생각을 살펴본다.

첫째, 영조는 우선 난의 원인이 봉당의 폐단과 민생의 곤경에 있다고 본 만큼 그 해결책도 "일심으로 봉공하고 동인협공(同寅協恭)하는" 정치를 실천하는 속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난이 마무리 되어가는 1428년 3월 25일에 내린 전교(傳敎)에서 그는 자신의 "덕이 박한 탓으로 국가가 판탕(板蕩)한 때를 당해, 안으로는 우리 국가를 평화롭게 하지 못하고, 밖으로는 우리 백성들을 구제하지 못했다"면서, 그 연유한 바는 크게 두 가지라고 말했다. "그 하나는 조정에서 오직 붕비(朋比)만을 일삼아 오직 재능 있는 자의 등용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색목(色目)만을 추중(推重) 권장한 것"이고, "또 하나는 해마다 연달아 기근이 들어 백성들은 죽을 지경에 처해 있는데도 구제해 살릴 생각을 하지 않고 오직 당벌(黨伐)만을 일삼는 것"이라는 진단이 그것이다(영조실록 04/03/25 乙亥). 이러한 상황에서 "백성들이 조정이 있음을 모른 지 오래 된" 것은 당연한 것이며, 따라서 그들이 와해(瓦解)되어

29) 아전층의 공로는 '연조귀감' 등에 기록되어 나중에 정조시대에 들어 아전층의 통청(通淸)운동을 전개하는 근거가 되기도 했다(이진홍 1982).

적도에게 투입한 것은 그들의 죄가 아니요 실로 조정의 허물이라는 게 영조의 반성이었다.

영조에 따르면, 이번 난이 진행되는 동안에 “세가(世家)·대족(大族)들로 녹(祿)을 받으며 조정에선 사람들이 도리어 아래 백성들만도 못했다.” 일반 백성들과 군사들은 일단 난이 일어나자 “분격(奮激)하여 적과 맞닥뜨리고자 하였고 (나라에서) 안집(安集)하면 감격함이” 있었는데 반해, 이른바 유명한 사대부(士大夫)요 세가의 대족들은 “기꺼이 적에게 붙어 편안히 여기고 부끄러워할 줄을” 몰랐다는 것이다.

이어서 그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탕평(蕩平)을 말했으나 신하들이 겉치레로 보고 따르지 않았는데, “지금 이후로는 그런 옛 마음을 끊기를 마치 한 칼로 양단(兩斷)하듯” 끊어버리라고 주문했다. “일심으로 봉공(奉公)하고 동인협공하여 화를 바꿔 도리어 편안함이 되게 하면, 이 역시 중흥(中興)하는 데 일조(一助)가 될 것”이라는 자신의 정치 비전도 얘기했다 (영조실록 04/03/25 乙亥).

둘째, 영조의 정치비전은 그로부터 한 달 뒤 한글[諺文]로 번역해 널리 선포된 비망기(備忘記)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초당파적으로 인재를 등용하겠다는 것과, ‘부자(父子)와 같은 군신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약속이 그것이다. 그는 자신의 부덕함으로 국가의 안위가 터럭 같은 위험에 처하게 되었으나, 국가 원로(최규서)가 충성을 바치고 병조판서(오명항)를 비롯한 여러 장수가 충의를 분발해 겨우 안정이 되었다면서 지금의 “강개한 뜻을 항상 가슴속에 보존하여 잠시도 이 마음을 잊지 않는다면, 이것이 우리 동방을 비색한 운수에서 태평한 운수로 전환시킬 수 있는 하나의 큰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하교했다:

만일 잘 다스려지기를 도모하려 한다면 그 요점은 인재를 임용하는 데 있다. 근래 사람을 임용하는 방법이 오로지 문벌(門閥)만을 숭상하고 그 재능은 돌아보지 않고 있으며 대관(大官)·소관(小官)을 막론하고 경력(經歷)만을 근본으로 삼을 뿐이고 채용(才用)은 뽑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하고서도 나라가 잘 다스려질 수가 있겠는가? 지금부터는 마땅히 그 재능의 적당(適當)에 따라서 뽑아야 할 것이요 다시는 경력을 일삼지 않아야 한다. 삼공(三公)과 양전(兩銓)의 신하들은 나의 오늘 이 하교를 본받도록 하라(영조실록 04/04/22 壬寅).

여기서 영조는 그 동안 인재를 선발할 때 문벌과 소속 당파, 즉 경력(經歷)만을 중시하고 인재의 재주와 능력[才用]을 경시했음을 지적하고, 조정의 핵심 관료들에게 앞으로는 능력에 따른 초당파적인 탕평인사를 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오로지 인재의 합당한 것만을”

중시하는 인사정책을 한다면 “막힌 운수를 태평한 운수로 전환시키는 데 있어 한 가지 도움이 될 것”(영조실록 04/04/22 壬寅)이라는 강한 요청이 그것이다.³⁰⁾

셋째, 한 가족과 같은 국가구성원들 사이의 관계 선언이다. 영조는 앞의 비망기에서 “부자(父子)와 같은 군신(君臣) 관계”를 말했다. 그는 이번 반란이 개인의 가문이나 당파의 원수를 보복하려는 생각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다면서, 하지만 “설사 각기 개인적인 원수는 있을지라도 조정에 대해서는 감히 원수로 삼을 수는 없는 법”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일련의 정치 격변 속에서 부조(父祖)나 스승이 반대 세력에 의해 희생되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반대 세력이 세운 조정, 즉 영조 자신의 정권을 부정하거나 뒤집으려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었다. 영조는 “의리의 정미(精微)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잘 알 수 없지만, 마땅히 연석(筵席)에서 한 번 효유(曉諭)해야 하겠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 군신(君臣)은 부자(父子) 사이 같은 것이다. 아버지가 환란을 겪고 있는데 그 아들이 감히 환란이 겨우 안정되자마자 그 아버지를 떠나서 출타하여 그 붕우(朋友)만을 위한 채 부모를 돌아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지금 내가 선조(宣祖)께서 의주[龍灣]에 머물러 계실 때 지은 어제시(御製詩)를 삼가 오늘날 낭송하노니 여러 신하들은 내 말을 가슴에 깊이 새겨 들으라. 지금 이 하교를 종이 위의 빈말이 되게 하지 않는다면 어찌 국가를 위해 다행한 일이 아니겠는가? 아! 오늘날은 곧 우리 동방의 비색과 태평이 가름나는 분기점이니, 경(卿) 등은 다함께 힘과 마음을 합쳐야 할 것이다(영조실록 04/04/22 壬寅).

여기서 영조는 당시 신하들의 태도를 어려움에 처한 아버지, 즉 임금을 몰라라 하고 오직 친구[朋黨]만 위하는 사람으로 비유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처지를 당파 싸움 속에 의주까지 피난 간 선조임금의 경우에 빗대고 있다.

여기서 군신 관계를 부자(父子)관계로 환치시키는 영조의 관점이 주목되는데, 이것은 영조실록에서 자주 나오는 ‘백성 = 동포(同胞)’론과 연관되어 있다.³¹⁾ 그는 조정 관리들에게

30) 영조는 여러 공신들과 거행한 회맹제(會盟祭), 즉 경복궁 신무문 밖의 재전(齋殿)에서 왕과 훈신(勳臣)들이 술과 피를 마시면서 공신(功臣)의 의를 맺는 의식(儀式) 및 교서에서도 공정한 태도를 당부했다. 군신이 “영구히 편파(偏頗)를 없애고 함께 나랏일을 의논하는 데 힘쓰며” “늘 전일(專一)한 마음으로 정성(誠)을 다해” 나랏일에 임해야 한다는 요구가 그것이다(영조실록 04/07/18 乙亥; 19 戊辰).

31) 이근호의 연구에 따르면 태종(1건)이나 세종시대(1건) 등 조선 전기에도 “동포”라는 말이 쓰이고 있으나, 그것이 본격적인 정치적인 용어로 자주 사용되는 것은 숙종(11건), 영조(12건), 정조(3건) 시대에 들어서였다. 영조의 동포론과 백성접촉에 대해서는 이근호의 박사논문(2001, 263-271)을

백성들을 동포애를 가지고 대하라고 촉구하곤 했다. “아! 그대 공경(公卿)과 백집사(百執事)들이여, 그대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들은 모두 여러 조정에서 세록(世祿)을 받은 신하였고 저 백성들 또한 여러 조정에서 사랑하여 구휼하던 적자(赤子)였다. 이는 『서명(西銘)』에 이른바, ‘백성은 나의 동포(同胞)이고 만물은 나의 동류(同類)이다.’ 한 것과 같은 격인 것이다. 따라서 구렁텅이[溝壑]에 같은 동포인 백성이 빠져있을 때, 혹시라도 구제하는 데 늦을까 두려워한다면, 국사는 면려하기를 기다리지 않고도 저절로 면려될 것이고, 구습은 잊기를 기약하지 않아도 저절로 잊게 될 것이다. 각기 힘쓰기 바란다.”(영조실록 13/01/02 辛卯)는 당부가 그것이다.

그는 특히 송(宋)나라 때의 학자 장재(張載)의 말을 빌어 “백성은 나의 동포다[民吾同胞]”라는 말을 하곤 했다(영조실록 07/01/05 己巳; 46/6/18 壬辰). 전염병(영조실록 07/06/09 庚子)이나 기근 등으로 백성들이 죽어간다는 보고를 받을 때마다 영조는 “비록 왕장(王章: 법)에서는 벗어나더라도 하늘에서 환하게 살펴보고 있으니, 피할 수 있겠는가”라면서 수령들에게 ‘동포애’를 가지고 구제에 나서라고 촉구하곤 했다(영조실록 07/01/05 己巳).³²⁾

요컨대, 영조는 조선이라는 나라 전체를 하나의 집안으로 보고, 백성들을 같은 부모에게서 난 자식으로, 그리고 왕 자신은 부모로 여겼다. 자식들 사이에 좀 더 힘센 놈과 약한 놈, 똑똑한 아이와 그렇지 못한 아이가 있을지라도 그들은 모두 같은 땀줄에서 나온 형제자매로서 차별 없이 더불어 잘 살게 해줄 책무가 부모인 국왕에게 있다는 생각,³³⁾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당파가 아닌 능력에 따라 인재를 발탁해 써야 한다는 게 영조의 정치관이었던 것이다.

바로 그러한 영조의 백성관과 정치관이 있었기에 일반 백성들이 ‘이인좌의 난’ 때 “분격하여 적과 맞닥뜨려” 싸웠고, 오명항과 같은 당파가 다른 인재들조차 “임금이 욕을 당하면 신하는 마땅히 죽어야 한다”(영조실록 4/3/17 丁卯)면서 반군 진압에 신명을 바칠 수 있었다고 본다.

참조할 것.

- 32) 이러한 영조의 ‘동포론’은 그의 손자이자 후계왕인 정조로 계승되었다. 즉 정조는 즉위년 9월의 이른바 ‘탕평윤음’에서 “아! 탕평이란 곧 편당(偏黨)을 버리고 상대와 나를 잇는 이름인데, [...] 위에서 본다면 균등한 한 집안의 사람들[一室之人]이고 다같은 동포(同胞)이다. 착한 사람은 상을 주고 죄가 있으면 벌을 주는 것에 어찌 좋아하고 미워하는 구별이 있겠는가.”(정조실록 0/9/22 庚寅)이라고 말하고 있다.
- 33) 김백철 박사는 이것을 ‘民國’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는데, 그에 따르면 백성이라는 변수가 국정의 주요한 지표로 중시되는 것은 숙종대 이후부터인데, 영조에 의해 중요한 정치개념으로 등장해 균역법 등을 추진하는 핵심적인 정치이념으로 사용되었다(김백철 2009).

VI. 맺는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인좌의 난'은 1728년 3월 15일(청주성 함락)부터 3월 28일(경상도 우치지 전투)에 이르기까지 약 보름간 진행된 전국적인 반란이었다. 이인좌, 박필현, 정희량 등이 중심이 된 이 반란은 '경종독살설'과 같은 유언비어와(영조실록 4/3/20 庚午, 史評) 계속되는 기근으로 인해 흥흥하던 민심을 등에 업고 충청도와 경기도, 그리고 경상도 일대를 장악해 갔다. 하지만 오명항 등 관군 지휘부의 주도면밀한 대응과 영조 정권의 적극적인 소통 및 정보통제로 지역별 연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괴멸하고 말았다.

그간 '이인좌의 난'은 영조 초반의 불안정한 정국 동향의 한 측면(김삼배 1999) 내지 영조 탕평책의 배경(박광용 2003, 50-51), 그리고 조선후기 하층 민중세력의 성장(정석종 1994, 이종범 2003)의 측면에서 다루졌다. 기존의 접근은 주로 난을 일으킨 사람들의 입장에서 기술되었다. 하지만 이인좌의 난은 집권한 지 얼마 안 되는 영조 정권에서 볼 때 중차대한 도전이고 시험이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주로 정부의 입장에서 반란이라는 위기를 극복해 가는 과정을 다루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첫째, 영조 정권은 반란 발발 소식을 듣고 초기에는 반군의 주동자와 규모를 파악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조정 내의 의견이 분열되어(이광좌와 조태억 등의先机엄조치론 ⇔ 영조와 오명항의 先사실조사론) 도성 민심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초기 진압의 기회를 놓쳤다.³⁴⁾ 하지만 3월 17일 이후 병조판서 오명항이 자진해서 관군 지휘부로 나서고, 오광운의 제의에 따라 국정을 실시, 적정을 파악함에 따라, 군사요로의 차단(18일)과 도성방위대책 수립(19일), 언문으로 번역된 교서의 전국 반포(21일) 등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둘째, 영조 정권은 현직 고위 관리들이 중앙과 지방에서 연계해 반기를 들고, 이인좌[윤희], 정희량[정온], 정행민[정인지] 등 명망가들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다. 이 상황에서 영조는 반란군과 같은 당파(소론)이며 친분관계에 있었던 오명항과 그의 보좌관(從事官) 박문수를 중용하는 모험을 했다. (만약 오명항과 박문수가 당파의 이익을 내세워 관군을 반군과 연합해 조정으로 쳐들어왔을 경우, 영조 정권은 치명적인 지경에 처할 수도 있었다.) 그리고 영남, 충청, 북방의 명사들을 소모사로 임명해 지방의 인심을

34) 이에 대해 『영조실록』의 사관은 “이때 급서(急書)가 올라온 지 이미 2일이 지났는데도 아직껏 적정(賊情)의 허실을 몰랐다가 이에 이르러 상하가 경동했다.”고 하여 조정의 느장 대응을 비판하고 있다(영조실록 04/03/16 丙寅).

안돈시키게 했다. 그에 보답이라도 하듯이, 총사령관 오명항은 충청·경기도의 반군을 진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박문수도 경상도 지역에서 큰 공로를 세웠다. 한마디로 소론을 가장 잘 아는 소론 인물을 등용해 반란을 진압한 것이다.

결정적으로 영조는 반란이 진행되는 동안 수시로 난의 발생 원인이 조정의 잘못, 즉 붕당의 폐단에 있음을 지적하고 난이 진압된 후 탕평책을 본격 실시하여³⁵⁾ 초당파적으로 인재를 등용하고, 온 나라가 한 동포와 같이 화합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정치를 이끌어가겠다는 정치비전을 제시했다. 바로 그러한 영조의 비전 제시와 인재경영이 이인좌의 난이라는 중차대한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게 했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극복 과정에서 소론과 남인, 그리고 많은 백성들까지, 영조를 단지 '노론의 군주'가 아니라 '조선의 국왕'으로 인식하게 되는 첫 실마리가 형성되었다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참고문헌

〈1차 자료〉

『영조실록』, 『정조실록』, 『승정원일기』, 『추안급국안』, 『감란록』, 『당의통략』, 『연조귀감』, 『대동야승』, 『성학집요』, 『연려실기술』

〈2차 자료〉

- 고성훈. 1992. "영조말-정조초의 정국과 삼대역모사건." 『박영석교수화갑기념 한국사학논총』 상.
- 고수연. 2004. "영조대 무신란 연구의 현황과 과제." 『호서사학』 39집. 호서사학회.
- 김백철. 2005. "조선후기 영조대(英祖代) 탕평(蕩平)정치 이념과 《주례(周禮)》." 『한국사론』 제 51권.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 김백철. 2009. 『조선후기 영조의 탕평정치 연구』.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 김준석. 1991. "조선후기의 당쟁과 왕권론의 추이." 『조선후기 당쟁의 종합적 검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박광용. 1994. "조선후기 '탕평' 연구." 서울대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 박광용. 1998. 『영조와 정조의 나라』. 서울: 푸른역사.
- 박광용. 2003. "영조대 탕평정국과 왕정체제의 정비." 『한국사』 32.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35) 박광용 교수 역시 '이인좌의 난'을 계기로 영조의 "탕평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다고 보고 있다(박광용 1994, 43).

- 박종성. 1996. 『왕조의 정치변동』. 서울: 인간사랑.
- 박현모. 2009. “한국형 리더십의 역사적 조망: 박문수 설화로 본 한국인의 지도자 인식 연구.” 『제2회 한국형 리더십 컨퍼런스 자료집』. 한국형리더십연구회.
- 이근호. 2001. 『영조대 탕평파의 국정운영론 연구』. 국민대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 이상배. 1999. 『조선후기 정치와 패서』. 서울: 국학자료원.
- 이성무. 1998. 『조선왕조사』 1권. 서울: 동방미디어.
- 이영춘. 1998. 『조선후기 왕위계승연구』. 파주: 집문당.
- 이원균. 1971. “영조 무신란에 대하여.” 『부대사학』 2.
- 이은순. 1988. 『조선후기 당쟁사 연구』. 서울: 일조각.
- 이종범. 1985. “1728년 무신란의 성격.” 이태진 편, 『조선시대 정치사의 재조명』. 서울: 범조사.
- 이종범. 2003. “여러 지역의 항쟁과 ‘무신란’.” 『한국사 36』.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 이진홍. 1982. 『연조귀감』. 서강대 인문과학연구소.
- 이태진 편. 1985. 『조선시대 정치사의 재조명』. 서울: 범조사.
- 이태진. 1985. 『조선후기의 정치와 군영제 변천』. 한국연구원.
- 정만조. 1986. “영조대 중반의 정국과 탕평책의 재정립: 소론탕평에서 노론탕평으로의 전환.” 『역사학보』 111. 역사학회.
- 정석종. 1994. 『조선후기의 정치와 사상』. 파주: 한길사.
- 정윤재. 2003. 『정치리더십과 한국민주주의』. 서울: 나남출판.
- 최봉영. 1992. “임오화변과 영조말·정조초의 정치세력.” 『조선후기 당쟁의 종합적 검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최완수 외. 1998. 『우리문화의 황금기, 진경시대』. 파주: 돌베개.
- 한국역사연구회. 1990. 『조선정치사: 1800-1863』 상·하. 파주: 청년사.
- 한영우. 1997. 『다시 찾는 우리역사』. 파주: 경세원.
- N. Machiavelli. 1961. *The Prince* (London: Penguin Book).
- Plato. 1961. *Statesman, in Collected Dialogues of Plato*, eds. E. Hamilton & H. Cairns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ABSTRACT

King Yeong-jo's Crisis Overcoming Leadership: Focused on the Lee In-jwa's Rebellion in 1728

HyunMo Park |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Lee In-jwa's Rebellion was one of the most dangerous crises in King Yeong-jo's regime. The Rebellion was raised by prestigious families such as Lee In-jwa (Yoon Hue's grandson-in-law), Jeong Hee-ryang (Jeong-on's descendant), and Jeong Se-yoon (Jeong In-ji's descendant). They broke out rebellion in the middle and southern areas Korea: ChungChong-do, Kyungsang-do, and Jeolla-do simultaneously.

How King Yeong-jo had overcome it? First, he had an adventure which he placed full confidence in his subjects like Oh Kwang-wun [NamIn], Oh Myung-hang [SoRon], and Park Mun-su [SoRon] who could had been his political rivals. Second, he diagnosed in early stage cause of rebellion as the severe political cleavage. He, thus, suggested Grand Harmony policy [Tang Pyong Policy] as a new solution. He promised that he would appoint personnel to positions according to their ability, not the political background. He had tried to inform his new political vision to his people through translating into Korean Alphabet version in every corner of the land. After 15 days he had overcome the rebellion successfully and turned the crisis to chance as a result.

Keywords: King Yeong-jo, Leadership, Lee In-Jwa's Rebellion, crisis overcoming, political vision.